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WSJ, 블룸버그 등 유료 구독지의 경우 법적 이슈 때문에 원본을 링크로 연결한 점 널리 양해 요청드립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경제 선행지수, 경제 위축 예고
- YahooFinance: 연준의 두 가지 목표 변경 압력 커진다
- WSJ: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연방 부채 문제 개선 힘든 이유는

[미국 금융]

- YahooFinance: 월가 전략가들 "금리 인하 후 증시 상승세" 전망

[미 무역 정책]

- WSJ: 트럼프 행정부, 정부 지원 제조업 진작 모색
- Bloomberg: 한미간 자동차 관세와 비자 이슈로 교착 상태

[주택]

- YahooFinance: 미 모기지율 오히려 상승

[에너지]

- CNNBusiness: 겨울 난방비, 곧 인상된다
- WSJ: 태양광으로 달리는 자동차 및 트럭 등장 임박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관세 해킹': 소매업체들이 가격을 낮추는 방법
- WSJ: FedEx, 관세로 중국 물량 감소에 국내 운송 집중
- CNBC: 월마트, 제 3차 판매 느슨한 심사로 신원 도용과 위조품 발생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U.S. Leading Indicators Continue to Show Weakening Economy

미 경제 선행지수, 경제 위축 예고한다

- 미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미 경제 선행지수가 8월에 0.5% 하락해 미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 지표는 앞으로 6~9개월 내의 경기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 성장 여부와 기업 투자, 소비자 지출, 고용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예상 변화를 보여준다.
- 이 같은 예상 위축은 제조업 주문 둔화와 소비자 기대, 노동 시장 관련된 둔화에 영향을 받았다.
- 높은 관세 조치로 이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1.6%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YahooFinance: The Fed's dual mandate is under new pressure in D.C.

연준의 두가지 목표 변경 압력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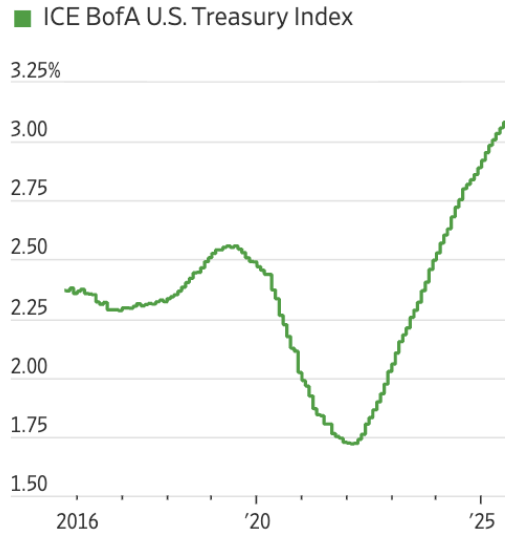
- 연준의 두가지 목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그런데 이 같은 목표는 공화당이 연준에 대한 압력을 가하면서 워싱턴 DC에서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금융소위원회 위원장인 French Hill은 연준의 두가지 목표를 없애고 단 한가지 목표인 물가 통제를 초점을 맞추는 법안을 상정했다.
- 그는 "연준이 너무 오랫동안 서로 갈등되는 두가지 목표 달성에 머물렀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제해 미국 가구의 재정 수입을 보호하는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법안은 이번주 수요일 상정됐는데, 중앙은행이 물가통제만을 목표로 하는 지역은 유럽연합 중앙은행 등이다.

YahooFinance 기사

WSJ: Why the Fed Rate Cut Won't Ease the Government's Debt Problem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연방 부채 문제 개선 힘든 이유는

- 최근의 금리 인하 조치가 미국의 부채 부담을 상당히 개선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대부분의 미국 부채는 고정 금리로 정해져 있으며 단기 차용 비용은 단기 금리 외의 다른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들은 기대 인플레이, 경제 성장 전망, 글로벌 자금 흐름 등이다.
- 미국의 점차 늘어나는 연방 부채는 금리에 민감해지는 상황이고 이 같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가지 선택들도 잠재적인 단점들이 있다.

Average interest rate on U.S. Treasury notes and bonds



Source: Intercontinental Exchange

WSJ 기사

[미국 금융]

YahooFinance: Wall Street strategists predict bull market path for stocks after Powell's 'risk-management' rate cut 월가 전략가들 “금리 인하 후 증시 상승세” 전망

- 미 증시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 연준은 이번주 수요일 금리를 0.25% 인하한데 이어 올해말까지 두차례 더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라며 이번 수요일 금리를 인하했다.
- 이로 인해 월가는 증시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을 더해주고 있다.
-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아닐 때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해왔는데 이번 경우도 기업 실적들이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YahooFinance 기사

[미 무역 정책]
WSJ: Trump's Team Explores Government-Backed Manufacturing Boost
트럼프 행정부, 정부 지원 제조업 진작 모색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5천 5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활용해 공장 및 기타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 이 기금은 반도체, 의약품, 필수 광물, 에너지, 선박, 양자 컴퓨팅 개발 부문에 투자될 예정이며, 일부 프로젝트는 정부로부터의 특혜를 받게 된다.
- 이 계획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의 정부 지분을 확보하고, US Steel의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 이 계획이 어떻게 시행될 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율 중에 있으며, 투자 목적에 대한 의견 차이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WSJ 기사

Bloomberg: US-Korea Talks Remain Stuck Over Auto Tariff, Visa Issues
한미간 자동차 관세와 비자 이슈로 교착 상태

- 한국과 미국 정부는 특히 비자 이민단속 관련 조치와 자동차 관세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밝혔다.
- 그는 조지아 배터리 한국공장 건설 현장에서 수백명이 억류된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당면한 비자 이슈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촉구했다.
- 한국 정부는 또한 한국에 대한 25% 자동차 관세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데 조현 외무부 장관은 미국의 한국 대미 투자 등 요구조건들이 한국 국민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주택]
YahooFinance: Mortgage rates tick up following Fed move, though they're still near 2025 lows
미 모기지율 오히려 상승

-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 미 모기지율이 상승했다. 30년 고정 평균 금리는 0.15% 상승하여 6.37%를 기록했다.
- 작년 연준은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한 바 있는데, 그 기간 내내 모기지율은 상승했다.
- 이에 대해 Zillow의 이코노미스트 Orphe Divounguy는 “금융 시장은 더 빠른 통화 정책 완화를 예상하고 있다”며 “모기지율이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금요일까지 재융자 수요는 전주 대비 58% 급증했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0% 증가했다. 모기지 수요는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사상 최고치에

- 도달한 주택 가격과 고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주택 구매를 미뤘다.
- 파월 의장은 “주택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려면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 전했다.

YahooFinance 기사

[에너지]

**CNNBusiness: More bad news for Americans battling higher prices:
Winter heating bills are about to rise**
겨울 난방비, 곧 인상된다

- National Energy Assistance Directors Association(NEA)에 따르면, 올해 겨울 난방비가 평균 7.6% 상승해 976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 난방을 사용한다면 전기 요금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로 올라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번 겨울 전기 요금이 평균 10.2% 상승해 1,205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천연가스 난방을 사용한다면, 평균 8.4%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100 군데 이상의 가스 및 전기 회사가 올해 요금을 인상했거나, 내년에 요금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겨울 난방비가 증가하는 것은 의회가 지난 2년간 공공요금에 대한 연방 지원을 약 400만 달러로 동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계연도에도 거의 같은 금액을 제안하고 있다.

CNNBusiness 기사

WSJ: Solar-Powered Cars and Trucks Are Almost Here
태양광으로 달리는 자동차 및 트럭 등장 임박

- Aptera Motors를 비롯한 몇몇 스타트업들이 태양광만으로 하루 10~40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은 기존 전기차보다 훨씬 효율적인 설계와 전력 변환 기술을 통해 태양광 충전 성능을 높였다.
- 고속 주행 중 충격에 대비해 Aptera는 강화 유리와 유연한 패널을 사용한 자체 태양광 패널을 개발했다. 이 패널은 차량 외부가 손상되더라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 Aptera의 패널은 Telo Trucks의 전기 미니 트럭과 Polydrops의 전기 캠핑 트레일러에도 적용되고 있다. Telo는 최대 30마일의 주행거리를 보조하는 태양광 옵션을 제공하며, 약 25%의 고객이 이를 선택했다.
- DartSolar는 기존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루프형 태양광 패널을 개발 중이며, 2025년 말까지 출시 예정이다. 하루 최대 20마일의 주행거리를 더해줄 수 있으며, 보조 장치와 인버터가 별도로 필요하다.
- 현재 태양광 전기차는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익성 문제로 도입에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기술이 점점 보급되면, 머지않아 도로 위에서 태양광 차량을 흔히 보게 될 수도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Trade war ‘tariff hacking’: How retailers are using wholesale middlemen to keep consumer prices down
‘관세 해킹’: 소매업체들이 가격을 낮추는 방법

- 상품의 가격 폭이 다양한 소매업체들은 공급망 내에서 ‘관세 차익 거래 전략’(tariff arbitrage)을 활용해 관세를 낮추고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를 막고 있다.
- 이 전략 중 핵심인 B2B2C(기업 대 기업 대 소비자)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 웹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소매업체들이 처리하도록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 이러한 거래 방식은 중개 회사가 소매업체를 대신해 소비자의 주문을 처리한다.
-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면, 실제 거래는 중개 회사에게 전달되어 소매업체로부터 도매가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중개 회사들은 소매업체를 대신해 제품의 도매가에 대한 미국 관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 실제로, 영국 패션 소매업체 Yours Clothing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이후 관세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CNBC 기사

WSJ: FedEx to Lean on Domestic Shipping as Tariffs Slow China Volume FedEx, 관세로 중국 물량 감소에 국내 운송 집중

- FedEx가 관세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 내 운송에 더 의존할 계획이다.
- 이 회사의 1분기 수출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특히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량이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FedEx 임원들은 관세로 인해 2026년도에 1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이들은 줄어든 중국발 물량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내 운송 및 동남아시아와 유럽 지역 운송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FedEx의 1분기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켰다.
- FedEx는 이번 회계연도에 대한 가이드언스를 발표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1.1% 성장률을 상회하는 4~6%의 연간 매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WSJ 기사

CNBC: Walmart's Marketplace boom: How lax vetting came with identity theft and fakes 월마트, 제 3차 판매 느슨한 심사로 신원 도용과 위조품 발생

- Walmart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제3자 판매자 참여를 쉽게 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CNBC 조사에 따르면, 판매자 심사가 느슨해지면서 위조품과 사칭 판매자들이 마켓플레이스에 유입되는 경우가 늘었다.
- 예컨대 소비자들은 인기 건강 및 뷰티 제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샀지만, 제품 포장이나 철자 오류 등으로 위조품임이 드러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CNBC는 최소 43개의 판매자가 다른 실제 사업체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계정을 만든 것을 확인했다.
- 예전에는 Walmart가 판매자에게 사업자 식별번호, W-9 양식 제출, 사업 경력 증명 등 엄격한 서류 제출과 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점차 이런 요구사항들이 약화되어, 일부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출만으로도 판매자 승인이 가능해졌다.
- CNBC 보도 후 Walmart는 건강·뷰티 제품 카테고리의 제3자 판매자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일부 판매자는 브랜드 소유자나 제조업자로부터의 진품 입증 증빙서 또는 브랜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강화된 심사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 이러한 문제는 Walmart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Shop Safe Act" 같은 입법안이 이를 다루려 하고 있다.

CNBC 기사

뉴욕증시, 금리인하 하루만에 3대지수 최고 마감...나스닥 0.9%↑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다음 날,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은 각각 0.27%, 0.48%, 0.94% 상승하며 증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2.51% 급등하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하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했고, 인텔과 엔비디아는 반도체 협력 발표로 각각 급등했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